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협의체 간담회 개최

오정환 기자 | 승인 2026.04.06 08:25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3일 공주시사에서 청년농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협의체 간담회(왼쪽-농어촌공사, 오른쪽-청년농)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공주시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94농가에 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 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수진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 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정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지역별 소통 협의체 간담회 개최

✎ 김상훈 기자 | ⓒ 승인 2026.04.06 12:38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참여
현장 체감 및 어려움 등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
농산업 발전 방향 토론 및 간담회 등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지역별 청년농 간담회 개최(사진제공=농촌공사 공주시사)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역별 청년농의 의견 및 농지지원 강화 방안을 위해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94농가에 더한 71ha를 더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어 낼 각종 대안 방향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따라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박수진 공주시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상훈 기자 kksh123@korea.com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6.04.05 19:57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3일, 공주시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가 참석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94농가에 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수진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지역별소통협의체’ 의 견수렴 간담회 개최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6.04.05 15:01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전경. /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수진)는 지난 3일 공주시사에서 청년농 의견수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94농가에 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으며.

박수진 공주시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 김태영 기자 | ☎ 승인 2026.04.05 14:10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94농가에 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수진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taeyoung3000@ccdn.co.kr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청년농 소통 간담회'... 영농 정착 지원 확대 추진

청년농 애로사항 청취 및 농지 지원 제도 개선 논의

고종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6-04-04 12:21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4월 3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및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지 지원 제도 개선과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3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농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공사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농지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농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과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94개 농가에 71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제공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해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 임대 후매도 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초기 자본 확보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지사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